

카페베네의 매거진
우리동네 Side B

햇살이 비치는 작은 골목길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나날들
무심히 스쳐 지나가는 보통의 사람들

하지만 그 이면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면
소중한 이야기들이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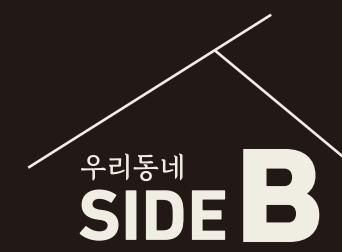
카페베네의 동네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우리동네 Side B를
산책하듯 천천히 훑어주세요

Vol.4

우리동네
SIDE B



CAFFE BENE





Editorial

어느 날 문득
고객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글을 살펴보다가

카페베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여
새로운 동네를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
상상을 해보게 됐어요.

분명, 다양한 분들이 동네를 구성하고 있을 거예요.

맑은 햇살 아래에서 푸른 잔디 위를
마음껏 뛰노는 반려동물도 있을 거고요.
카페인에 민감해 커피를 즐기지 못하시는 분도 계세요.
400년 넘은 느티나무 그늘 아래
휴식을 취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존재하고요.
그런 아이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어르신들도 있었죠.

길을 잃은 동물들과 대화하는 베네캣과
환경과 동물을 생각하는 비건 분들로
다정한 마음이 가득 찬 골목은 오늘도 따뜻할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든 생각인데요.

다양한 취향을 가진 우리동네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더 많은 선택지가 있어야겠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라는 말은 그렇게
더 많은 대상과 사람들을 고려할 때
발음할 수 있는 단어인지도 모르니까요.

카페베네는 2021년,

한시적으로 비건 분들을 위한 귀리 우유를 제공했고,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을 위해 디카페인 커피를 출시하며
모든 콜드브루 메뉴에 디카페인 가능 옵션을 적용했어요.

시그니처 빙수는 1인 빙수로 만나볼 수 있게 했고,
이번에 새로 오픈한 의정부역점은 팻 프렌들리 매장으로
펫티켓을 지키며 반려동물과 함께 커피를 즐기실 수 있죠.

카페베네는 오늘도

고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카페베네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지속하고 있어요.

물론 처음부터 한꺼번에
모든 것을 변화시키겠다고 약속드릴 수는 없지만요.

카페베네가 다양한 분들의 취향을 고려하기 위해
오늘도 변화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Side B의 네 번째 이야기를 엮었습니다.

오늘 내가 속한 ‘우리’가 더 따뜻하도록
오늘 내가 속한 ‘우리’가 더 행복하도록

다양한 모습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지금 펼쳐보세요.

즐거운 우리동네가 되기 위한 첫걸음에
동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에디터 오 광록

베네캣의 연말 홈파티



- END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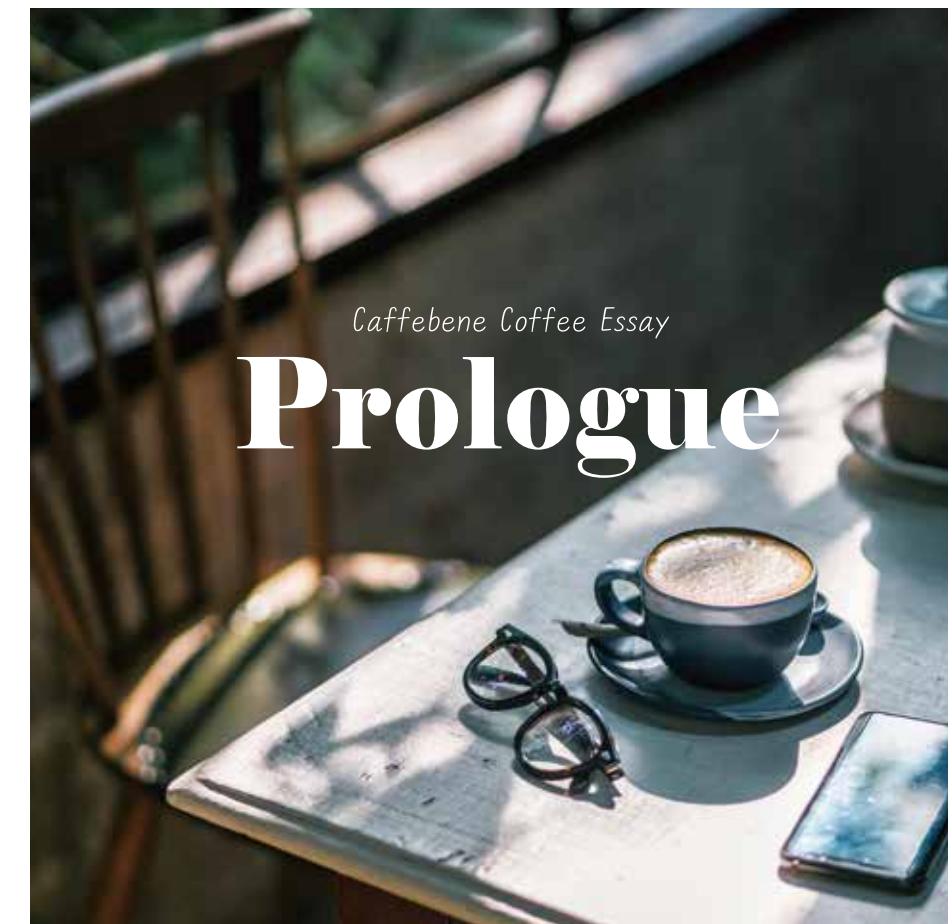


베네짱 (@benezzang)

"그림을 그리는 일이 제 일상생활 중 가장 힐링이 되는 시간이에요"
카페베네 대전은행동점에서 일하고 계신 베네짱 정가현님은 베네캣에 대한 넘치는 사랑과 열정한 관심으로 일러스트를 그리며 고객 여러분들과 새롭게 소통하고 계시는데요.
베네캣에 대한 사랑을 들풀 담아 그린 베네짱 정가현님의
"베네캣의 연말 홈파티" 이야기와 함께 따듯한 새해를 맞이해보세요!



커피를 좋아하시나요?



Caffebene Coffee Essay

Prologue

가장 쉽고 재밌는 커피 에세이를 만나보세요



일상에 존재하는 커피가 문득 낯설고 어렵게 다가온 적 없으신가요? 이렇게 다양한 커피라니,
나도 모르게 그 세계에 한 발짝 더 다가서고 싶어졌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어려워 질문이 먼저 생기게 되더라고요.

도대체 왜 국가 이름이 커피 앞에 붙는 건가요? 싱글 오리진은 말 그대로 직역하면 한 개 + 원산지 일 텐데,
원두도 여러 원산지가 있나요? 카페베네는 10년 동안 원두 공급 업체가 변하지 않았다는데,
오래 함께한다는 게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콜드브루는 뭐고 드립백은 또 뭐죠?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렵게만 느껴지고요. 어릴 적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했던 새로운 세상의 이야기처럼.
재밌는 스토리로 커피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데요. 어디 이해하기 쉽고 재밌는 커피 이야기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카페베네가 커피 초보자도 재밌게 읽을 수 있게 기획한 [베네 에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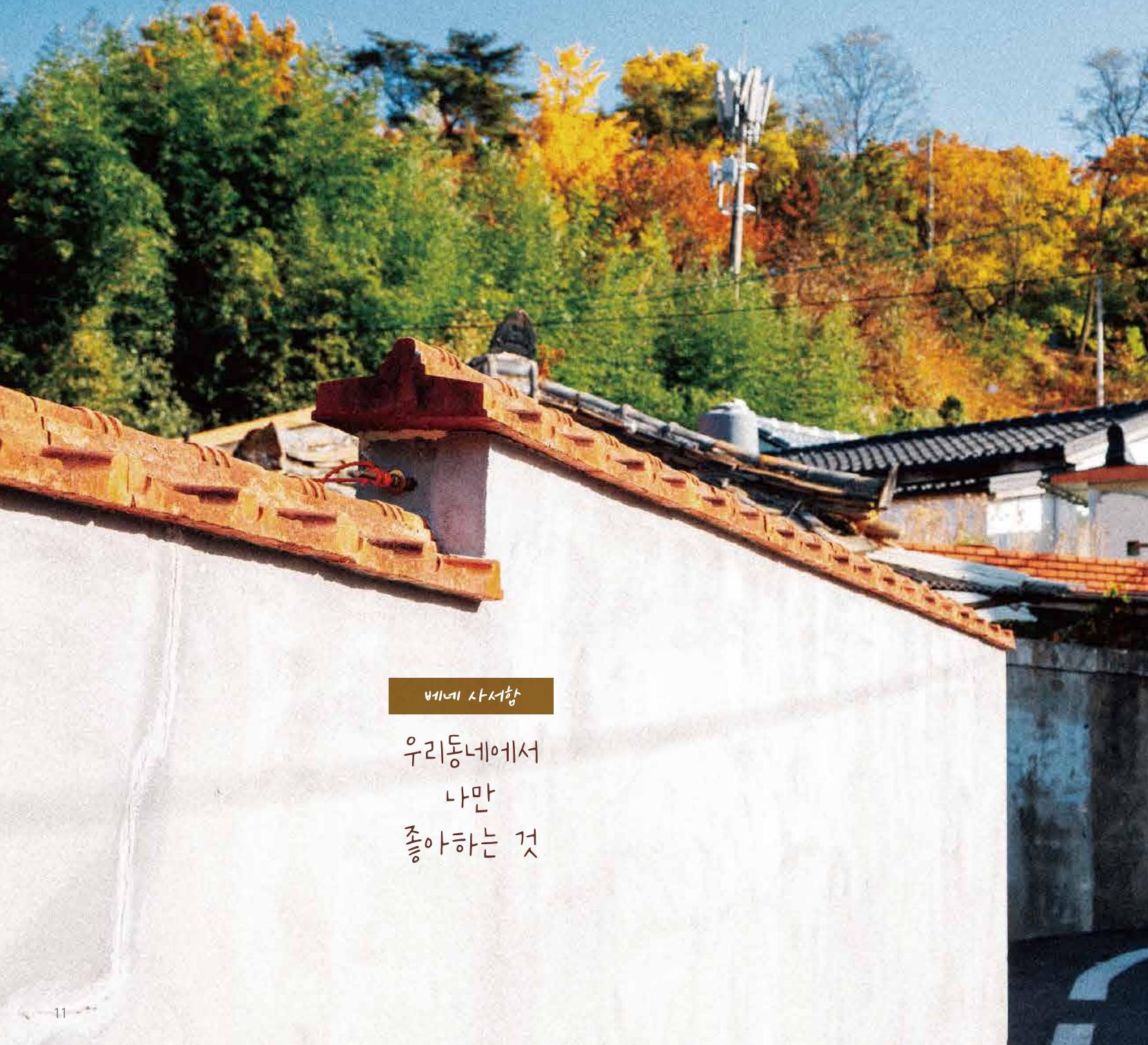
책과 영화, 클래식, 그리고 미술까지. 의미를 알고 봤더니 더 재밌었던 경험 가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무엇인가를 알아간다는 건 어쩌면 그것을 향한 나의 해상도를 높이는 일일 거예요. 어떤 작품을 이해하고 선명하게 바라볼 때, 그 감동은 더욱 커지죠. 커피도 그렇답니다. 알고 나면 더 맛있게 즐기실 수 있는 게 바로 커피예요!

“
무엇인가 알아간다는 건 어쩌면
그것을 향한 나의 해상도를 높이는 것
”

커피의 역사가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요, 몇 백 년 혹은 수천 년 이상의 길을 커피가 걸어왔다는 것만큼은 분명해요. 그렇게 많은 길 안에는 카페베네가 걸어가는 길도,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도 있답니다.

여러분은 신맛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고소한 맛을 좋아하시나요? 어떤 나라에서 온 원두가 새콤달콤한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물론 그냥 즐길 수도 있어요. 그냥 마셔도 맛있는 게 커피니까요. 하지만 커피에 대해 알고 나면 우리가 좋아하는 취향으로 더 잘 즐길 수 있어요.

내 취향에 맞는 카페베네 블렌드를 베네 에세이와 함께 천천히, 재밌게 알아가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즐기고 계신 카페베네 커피가 더 향긋하고 맛있어질 거예요!



비네 사서함

우리동네에서
나만
좋아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평범한 것이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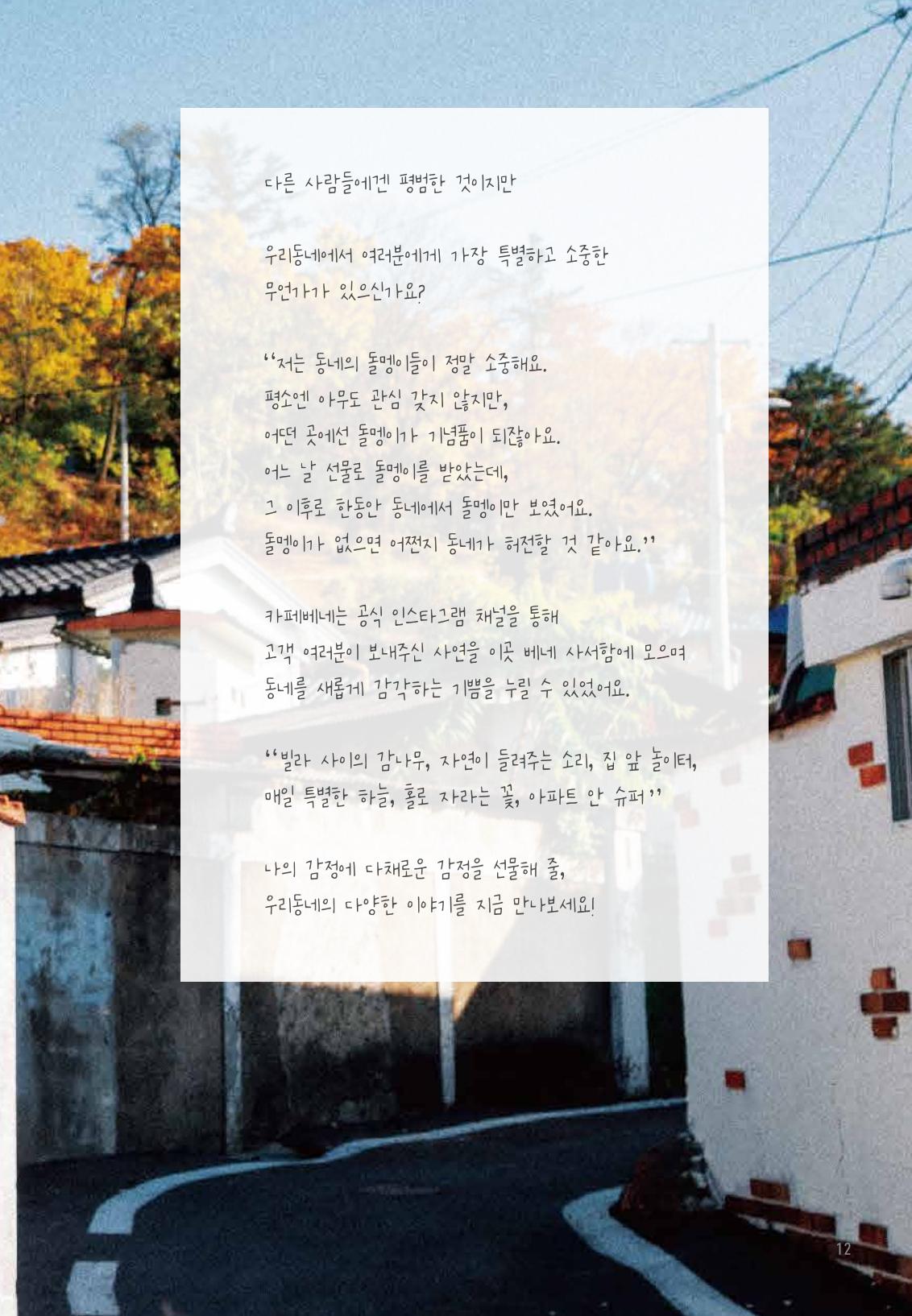
우리동네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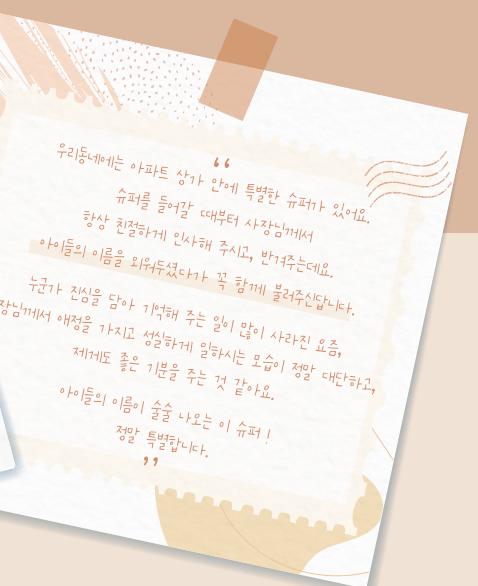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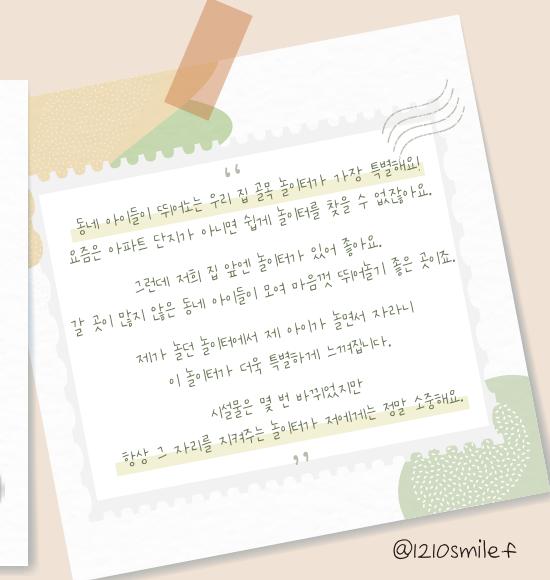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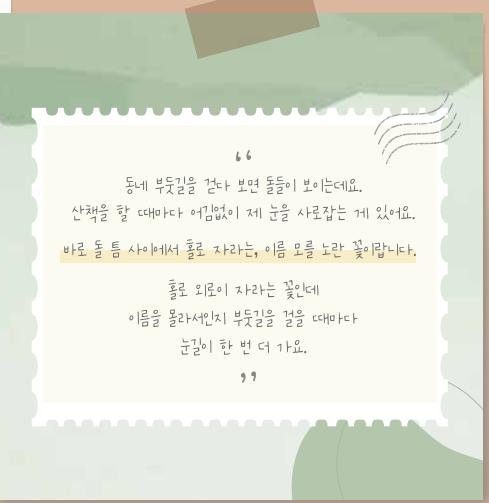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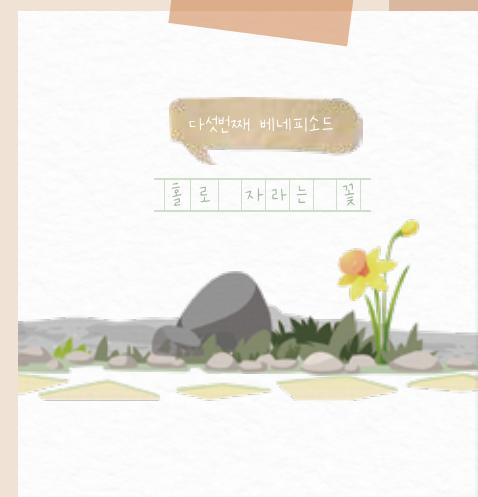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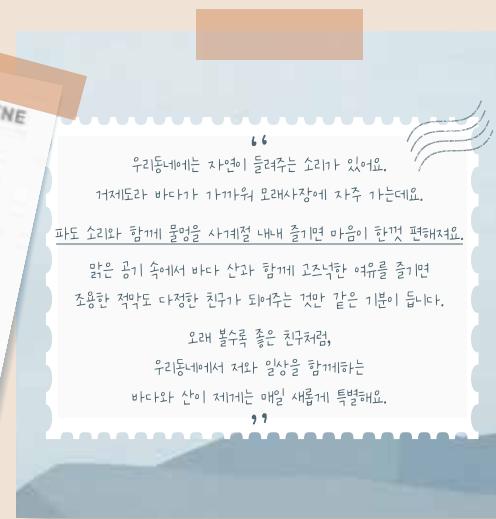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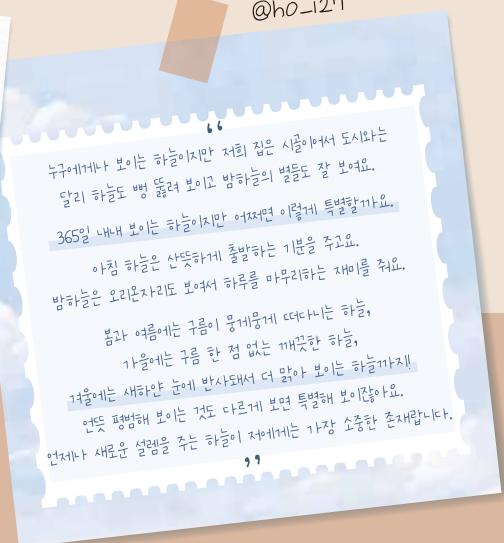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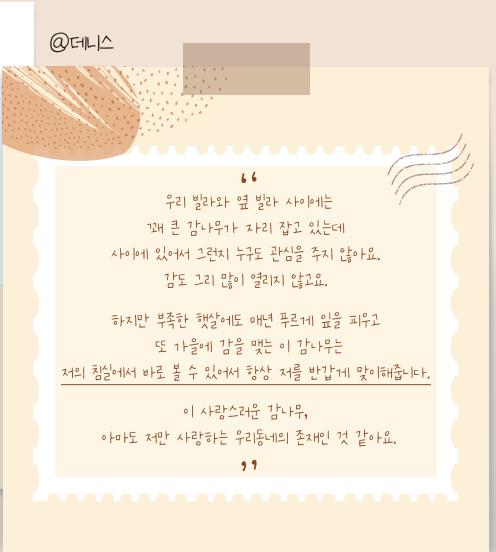
“저는 동네의 돌멩이들이 정말 소중해요.
평소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지만,
어던 곳에선 돌멩이가 기념품이 되잖아요.
어느 날 선물로 돌멩이를 받았는데,
그 이후로 한동안 동네에서 돌멩이만 보였어요.
돌멩이가 없으면 어쩐지 동네가 허전할 것 같아요.”

카페비네는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을 통해
고객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이곳 베네 사서함에 모으며
동네를 새롭게 감각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어요.

“빌라 사이의 감나무, 자연이 들려주는 소리, 집 앞 놀이터,
매일 특별한 하늘, 홀로 자라는 꽃, 아파트 안 슈퍼”

나의 감정에 다채로운 감정을 선물해 줄,
우리동네의 다양한 이야기를 지금 만나보세요!





겨울,
카페씨의 하루

카페씨는 아침에 나갈 때
꼭 텀블러를 챙겨요,
그중 가장 애용하는 것이
바로 베네캣 슬림 스텐컵입니다.

편안한 상태일 때
몸이 가볍다고 느끼는 것처럼,

베네캣 슬림 스텐컵은
한결 가벼워진 하루와
가장 편안한 일주일을
카페씨에게 선물해 주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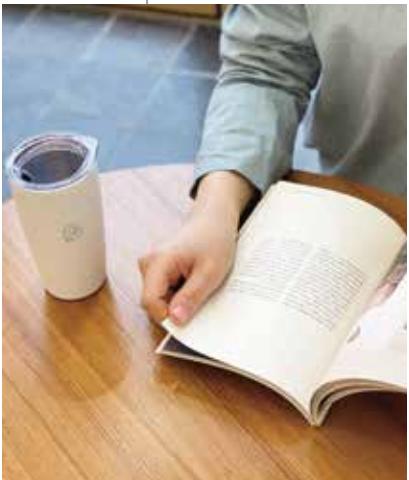


카페씨는 퇴근 후 거리를 걷는데요.
레스토랑과 카페에서는 여전히
크리스마스트리가 반짝이고,
캐롤이 울려 퍼지고 있었답니다.

카페씨는 새삼스레
새해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실감해요.

연말 파티 분위기 속에서
놀랍도록 조용한 1월 1일 새해의
정적을 상상하다 보면
새로운 설렘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카페씨는 이제 따뜻한 집에서 주섬주섬
베네 홀리데이 키트를 꺼내들어요,



작은 가방에도 쑥 들어가
출퇴근 때 챙겨 다니기 좋고,
간결한 디자인으로
홈 카페나 재택근무에도 참 용이해요.

환경을 고려한 사이즈로 특별하게 제작된
테이크아웃 잔 크기의 슬림 스텐컵은
BPA FREE 등급으로 환경호르몬 또한 나오지
않는답니다.



심플하고 간결하면서도 영롱한
이 베네캣 오로라잔은 언제 봐도 색깔과
긴 만족감을 선사해 줘요.

그 모습이 꼭 새해에 반짝 터지는 기쁨과
근사했던 우리만의 연말 홈파티를
다시 한번 연상시켜 웃음이 나오는 합니다.

혼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카페씨는
심심할 때면 이리저리 컵을 돌려보며
친구와 함께 베네 랜선 홈파티를 즐겼던
추억을 회상해 보는데요.

그날의 기억이 오로라 잔에 넘치게 담기면
유리 머들러로 추억을 훠궈 저으며
행복한 순간을 다시 한번 투명하게 비춰봅니다.

아침에는 시그니처 블렌드로
저녁에는 에티오피아 디카페인으로

카페씨는 오늘도 오전과 오후 모두
달콤한 시간과 여유를 선물 받은 후
저녁에 마침내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죠,



환경이라는 가치가 중요해진 요즘,
카페씨는 텀블러에 마실 커피 제품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포장 방식을 살피는데요.

재사용이 가능한 광목천 파우치로
포장된 베네 드립백은
커피를 마시고 나면 파우치에
이것저것 보관할 할 수 있어서 편리해요.

스르르 영롱한 오로라 잔의 매력에 취해
카페씨는 잠에 빠져들고,
이제 켜둔 TV에서는
연말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5, 4, 3, 2, 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Happy New Year !



통영이 그려운 나날들

글 사진 김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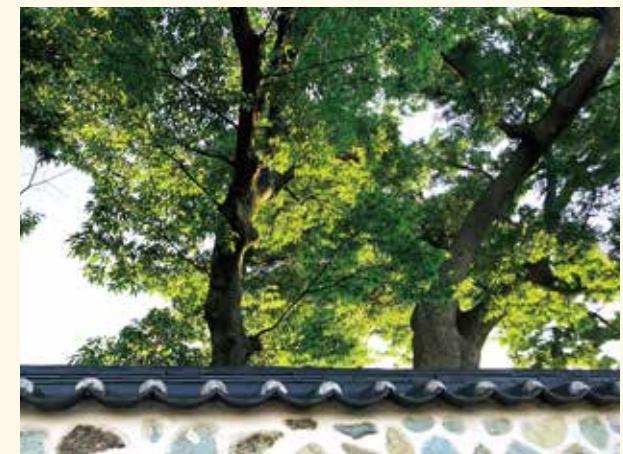
나는 어렸을 때 통영이라는 곳을,
내가 살았던 그 동네를,
오래 싫어했다.

어딜 가도 비린내가 진동하는 이곳이,
무슨 말을 해도 바뀌지 않은 그들의 불친절한 말투가,
유행하는 옷을 사기 위해 몇 시간 버스를 타고 큰
도시로 나가야 하는 불편함이 나는 싫었다.

어쩌면 그 당시 나는 어떻게든 통영을 떠나기 위해
이유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어릴 적 나는 지금은 국보로 지정된 세병관과 담을 나눠쓰던 초등학교를 다녔다. 세병관 복원 사업으로 모교가 사라지고 나서야 그 역사를 알게 됐지만, 당시 나는 세병관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지 못한 채 6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 어린 내게 세병관은 그저 종무공 이순신 배 사생대회 장소 외엔 특별한 것이 없는 곳이었다. 초등학생 5명이 양순을 뺏어도 달을까 말까 한 나이터를 자랑하는 학교 정문 앞 400년 된 느티나무조차 흔하지 않은 나무 중 한 그루였을 뿐이었다.

핸드폰도 없고 블루투스 스피커도 없던 시절 나는 친구들과 함께 그 느티나무 아래에서 카세트테이프 하나를 틀어놓고 음악에 맞춰 춤 연습을 했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참 행복했던 기억이 난다. 그 시절 나는 클래식 피아니스트가 꿈이었지만, 400년 된 느티나무의 따스한 그늘 아래에 누워 있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대중음악을 하는 유명 가수가 되고 싶다”라고 반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언했다.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저는 과학자가 꿈이에요,”라고 외치는 친구들 사이에서 나는 큰 도시에서 공연하는 유명 가수가 되어 본격적으로 사춘기의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렇게 내 기억 속 사춘기는 항상 친구들과 함께 시끌벅적했다. 때로는 선생님께서 “거기 뭐가 딱여나” 하고 우리를 걱정하셨지만 학교 대표 행사나 학교를 뽐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제일 먼저 우리들을 찾으시고는 했다. 아무래도 같이 어울려 다녔던 스무 명의 친구들과의 추억이 내가 기억하는 통영의 전부인 것 같다.

이제는 다들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었지?

항상 통영 탈출을 꿈꿨지만 쉽사리 나갈 수 없던 학창 시절에는 차라리 이 작은 도시가 어른이 되기 전까지 거대한 도시로 발전해있으면 좋겠다는 상상을 하는 것이 마음 편했다. 와지 사람들이 한국의 나폴리이며 통영을 찾아와 좋아하는 걸 볼 때마다 사춘기 소녀였던 나는 ‘이 친구들이 뭐가 좋지...’ 라며 언젠가는 나폴리를 직접 눈으로 보고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까지 다짐했다.

하지만 서른이 넘어서 직접 가본 이태리 나폴리는 말 그대로 통영 그 자체였다. 나의 촌구석 통영이 낭만과 이상이 넘치는 도시였음을, 나는 통영을 떠나고 나서야 깨닫게 된 것이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통영은 유명한 예술가들이 많이 살다간 동네였다. 우리 집 서열 1위 토니와 함께 산책하는 서피랑 길은 박경리 작가가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이었고, 소설 김 악국 딸들의 배경이 되었다. 세병관 돌담 따라 걷다 보면 집에서 5분 거리도 안 되는 곳에 통영 우체국이 있는데, 그 앞을 지나칠 때면 애타게 편지를 부치고 있었을 사랑꾼 유치환 시인의 모습이 자연스레 그려지기도 한다.

나는 지금도 통영에 들릴 때면 우체국 앞 유치환 시인의 ‘행복’ 시가 적혀있는 동상을 보며 한참을 서성이다가 오곤 한다. 그땐 왜 집 근처 세병관 돌담길이 근사한 곳인지 모르고 있었을까. 이제는 멀어진 나의 촌구석 도시 통영이, 나는 지금 이토록 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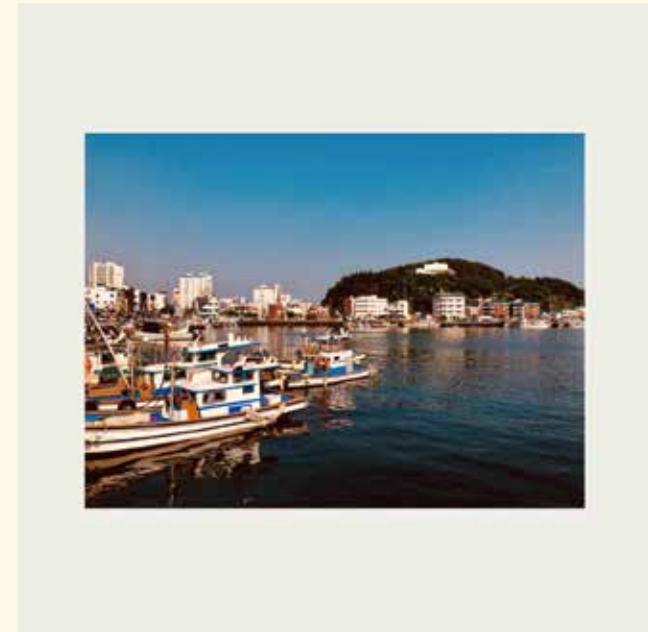


토니와 함께 산책하는 서피랑 길



통영 우체국 앞 유치환 시인의 ‘행복’ 시비

어린 시절 동네 친구와 놀았던 공간이, 내 발 길 달는 곳이 사실은 하나하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 가끔 마음속 위안이 될 때가 있다. 통영에서 나는 큰 도시의 대중 기수를 꿈꿨지만, 사실은 전국에서 다 아는 유명 예술가들이 이미 이곳 통영에 살고 있었다. 어찌면 통영 사람에게는 예술의 DNA가 흐르는 것 아닐까. 그렇게 오래 통영을 부정하던 나는 아이러니하게도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을 하는 디자이너가 되었다. 그러니 나는 오늘도 “나도 통영 사람이다. 그러니 할 수 있어! 다시 해보자, 뭘 때까지!”라고 다짐해 보는 것이다.



고향이 그립지 않은 사람은 없다. 고향은 삶의 기초다.
특히 문학하는 사람은 어린 시절의 추억이 밑천이다. - 박경리 -



나의 고향은 대한민국 최남단에 있는 작은 도시지만 결코 작지 않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며 순수함을 잃지 않게 만들어준 도시.
날것 그대로의 풍경들을 보여주며 자유롭게 모든 것을 상상할 수 있게 해준 도시.

그 통영의 다채로운 색깔들이
지금 내 안에 남아 나를 지탱해 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누군가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머뭇거리지 않고 통영이라고 대답하게 되었다.

" 저의 고향은 통영입니다. "



카페 베네
신규 매장을
소개합니다

익숙한 게 좋으면서도
평범한 일상에 생기는
설렘이 간절할 때가 있죠

친숙한 동네에 새로 오픈한
카페베네의 신규 매장과
동네의 활기찬 소식을
이웃 주민 베네지기가
다녀왔다고 합니다

[우리 동네에 오픈한 신규 매장을
글과 사진으로 미리 만나보세요]

오랜 시간 우리 곁을 함께한 카페베네가

신선한 변화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의 동네에
다정한 이웃처럼 찾아갑니다



New
카페베네 을지로 PJ 호텔점

도심 속에서 즐기는 완벽한 휴식을 꿈꾸시나요? 그렇다면 호텔 1층에 자리한 카페 특유의 기분 좋은 설렘과 정적인 분위기를 간직한 카페베네 을지로 PJ호텔점을 찾아보세요. 전문 파티셰님이 매일 아침 구워내는 신선한 빵과 고소하고 향긋한 커피가 가장 먼저 마중나와 줄 거예요. 을지로 한복판에 위치한 PJ호텔점은 베네켓과 함께여서 더욱 활기찬 느낌이 들었는데요, 오랜 문화와 높은 빌딩들이 숨 쉬는 중구를 한적하게 거닐다가 찾기에도 좋답니다.

힙지로의 운치 있는 골목과 DDP, 명동, 청계천처럼 메인 장소를 하나 잡고 이곳에서 잠시 숨을 고르면 참 좋아요. 호텔에 투숙하시는 분들께는 체크인과 체크아웃 사이에 여유롭게 머무는 공간이 될 예정이며 관광객분들에게는 편안한 쉼터가 될 예정인 이곳에서 나의 일상을 든든한 행복으로 채워보세요. 여행하는 느낌을 가지고 싶을 때, 카페베네 을지로 PJ호텔점에 들린다면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오늘의 행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서울 중구 인현동1가 2-35 PJ호텔 1층
08:00 ~ 22:00 (연중무휴)



New
카페베네 방이동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51길 7, 1층
(02-415-6232)
평일 07:00 ~ 22:00 / 주말 09:00 ~ 21:00



화이트톤으로 깔끔하게 차려입은 방이동점은 탁 트인 분위기로 올림픽 공원과 석촌 호수의 청량함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매장 전면에서 민트빛으로 활짝 반기는 베네켓을 지나 치면 매장의 단정한 모습이 바로 우리를 반겨주는데요. 봄과 가을에는 올림픽 공원에서 즐기기 좋은 디저트와 커피를 방이동점에서 미리 챙겨가도 좋답니다.



한성백제역 바로 앞에 자리한 방이동점은 거대한 석촌호수와 올림픽 공원을 들리기 전 만남의 장소 선택하기에도 좋아요. 매장 전면의 유리창과 높은 층고로 안과 밖의 감성을 그대로 연결해 주는 방이동점은 수백 년의 백제 역사의 방이동 위에 지어져 특별함을 더했는데요. 이곳 방이동점에서, 새로운 감성의 카페베네를 만나보세요!

New
카페베네 의정부역점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567번길 15, 1층 101호
(070-7840-0303)
09:00 ~ 22:00



따뜻한 봄날에는 아외 테라스에서 커피를 즐기실 수 있어요. 조용하고 깔끔한 분위기에서 간단한 브런치와 함께 커피 한 잔 마시다 보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실 거예요. 통유리 문과 밝은 창으로 오늘의 밝은 햇살을 한가득 품고 있는 의정부역점의 매력에 오늘 빠져보세요!





Signature Blend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누군가 맛있게 요리해 여러분께 대접하는 건 어떤가요?
정성이 담긴 요리가 내 눈앞에 차려졌을 때 기분 좋게 먹어본 기억,
한 번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어렵게 느껴졌던 커피 관련 용어 '블렌딩'은 흔히 요리에 비유된다고 해요.
신선한 재료를 간간하게 골라 하나의 요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블렌딩 역시 좋은 원두를 배합하여 최적의 '블렌딩 원두'를
만들어내는 작업이지요.



카야 토스트로 커피 블렌딩을 설명해 볼까요?

익숙한 '토스트'에 '카야'라는 단어가 붙어
어쩐지 낯설어진 이 토스트라면
커피에 붙은 '블렌딩'이라는
이 어려운 단어의 이해를
조금 더 쉽게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식빵을 구워 샘을 바를 때조차 우리는 버터가 어디서 왔는지,
샘은 어떤 샘을 쓸 것인지를 따져 고르고 좋은 빵을 엄선하지요.
그러나 요리가 어려운 이유는
아마 좋은 재료들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맛을 낼 수 없기 때문일 거예요.

빵 굽기도 신경 써야 하는데, 실패를 거듭한 후에야
가장 최적의 맛으로 빵을 구워낼 수 있으니까요.
버터의 양도, 샘의 양도, 빵 굽기도 모두 잘 어우러져 맛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맛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돼요.



블렌딩 원두도 그렇답니다.
비싸고 좋은 원두를 섞는다고 맛있는 블렌드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각 산지에서 온 좋은 생두들의 향미를 적절하게 섞어야 완성도 있는 블렌드 원두가 탄생합니다.
한 가지 음식에서 다양한 풍미의 맛을 느끼는 즐거움이 있듯,
한 블렌드에서 다양한 맛을 느끼는 즐거움도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베네 드립백 시그니처 '블렌드'는
어디서 온 원두로 이루어져 있고, 또 무슨 맛이 날까요?**

카페베네의 시그니처 블렌드는 각각 브라질 50% 과테말라 35% 에티오피아 15%로 구성되어 있어요. 브라질 생두는 크리미한 질감과 견과류의 달콤함, 곡류의 고소함이 특징입니다. 과테말라 원두는 스모키하고 다크초콜릿의 쌉싸름하면서도 달콤한 향이 나요.

에티오피아는 시트러스한 산미, 밀크 초콜릿, 블랙티의 향미를 느낄 수 있어요. 각기 다른 개성이 만나 단 하나의 개성, 견과류의 고소함, 브라운 슈가의 달콤함, 부드러운 풍미로 완성되었다니, 놀랍지 않나요?



“
각기 다른 개성이 만나
탄생한 단 하나의 개성
베네 드립백
시그니처 블렌드



여기서 브라질은 고소한 견과류, 구수한 곡물, 엿기름 같은 단맛이 특징이며 시그니처 블렌드의 전반적인 바디감과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 카페베네와 함께하고 있는 이파네마 농장은 그들만의 독특한 수확 방식으로 이미 유명합니다.

대부분의 브라질 커피가 기계로 수확되는 데 비해 이곳은 일일이 수작업으로 알맞게 익은 커피 체리를 구분해 가장 맛있는 생두를 수확해요.

에티오피아는 규모가 큰 농장을 운영하는 남미 지역과는 달리 작은 소작농들이 재배하는 커피를 모아서 지역구로 묶어서 대량 판매하는 곳이 많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중 베네 드립백 시그니처 블렌드 원두의 생산지는 에티오피아 남부 지역에 위치한 시다모 지역입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특유의 과일 같은 향미, 화사한 꽃향기가 대표적이며 시다모 지역 특유의 묵직한 뉘앙스를 지니고 있어 여러 나라에 인기가 많은 원두 생산 지역이랍니다.



각 산지의 단점은 빼고 장점만은 살린 방식으로 더 맛있어지는 블렌드의 매력! 블랜드마다 추구하는 맛의 지향점이 다름에 따라 모든 블렌드들은 각기 다른 맛과 향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메뉴라 해도 음식점마다, 그리고 세프에 따라 다른 맛을 내는 것을 보면 이해하기 쉬워질 거예요.

카페베네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시그니처 블렌드는 단 한 곳, 오직 카페베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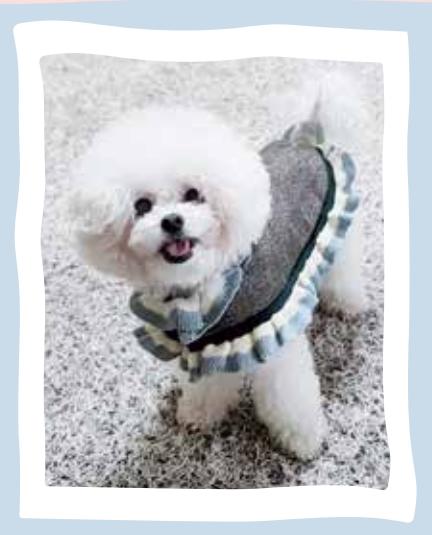


카페베네가 사용하는 과테말라 생두는 과테말라에서 가장 유명한 커피 재배 지역인 앤티구아의 스페셜티 등급에 해당하는 생두를 사용해요. 스페셜티 커피는 SCA(Specialty Coffee Association)의 기준에 따라 커핑 점수가 80점 이상일 경우 스페셜티 커피라고 평가됩니다.

결점두가 적은 좋은 품질의 생두를 로스팅한, 향미가 명확하게 발현되는 커피라고 할 수 있어요. 과테말라 스페셜티는 과테말라 특유의 다크 초콜릿, 흑설탕 같은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특징을 가지고 있답니다.

베테랑 집사

카페베네 서포터즈 베네랑 3기와
함께한 우리 가족 반려동물을 만나보세요



첫번째 이야기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 라라

두번째 이야기
우리 가족 몽이에게



세번째 이야기
구름이를 처음 만난 날
+ 구름이와 레오 소개

첫번째 이야기

인스타툰의 주인공
우리 라라를 먼저 소개할게요!

제 반려견 라라는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입니다.

공놀이를 제일 좋아해서, 저만 보면 하루 종일 거실을 뛰어다녀요.



조그만 체구에서

어떻게 큰 소리를 내는지 모르겠지만,

낫선 것들로부터 저와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경계하는 모습을 보면

기특하고 웃음이 나네요!



이쁜 옷은 좋아하지만 쓰는 것은 싫어해서

평소에는 부스스한 모습으로

열심히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라가 카페베네에 놀러간 날
글, 일러스트 / 김주은



[라라가 카페베네에 놀러 간 날]은

제 반려견 '라라'가 카페베네에 놀러 가서 생긴 일로 상상해 보았습니다.

라라의 상상과는 달리, 티라미수 가루가 코에 들어가서 재채기를 하고 말았네요!

라라가 주문한 음료는 바로 '콜드브루 티라미수 프라페노'입니다.

디카페인 음료도 있으니까 더 많은 분들께서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라와 함께한 생일파티
글, 일러스트 / 김주은



@homi.8394



[라라와 함께한 생일파티]는 반려견 '라라'가 제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홈파티를 꾸미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잘 준비했을까요? 라라의 홈 파티에 사용된 준비물은 카페베네의 겨울 신메뉴인 '로즈 뱅쇼'와 '바스크 치즈케이크'입니다. 그리고 '베네 홀리데이 키트'가 보이네요!

우리 가족, 봉이에게

글, 사진 : 박서정



종이 잠만 자는
할아버지가 되었네.

털의 윤기가 사라지고, 눈이 하얘지고,
다리도 휙들거리는 너를 보면서,

밥도 먹여줘야 하고,
잠도 자워줘야 하는 너를 보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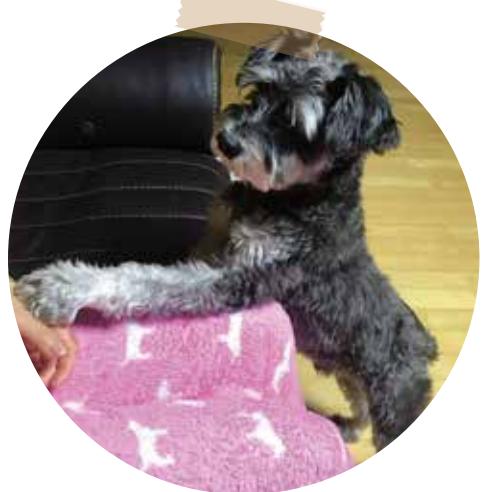
너의 세월이 나의 세월보다
빠르게 흐르고 있음을 실감해.



너를 처음 만났을 땐
상상해보지도 못한
일들을 자주 마주하면서

너의 시간은 왜 이리 짧은 건지
속상해하고
차라리 내 시간을
데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

하지만 슬픔에
빠져만 있지는 않을게.



그 대신 너와 함께하는 오늘,
지금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여전히 귀여운 너를 사랑해줄게.



몽아,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넌 우주 최고의 사랑스러운 생명체야
영원히 사랑해!

from. 서정

2	0	1	6	년	1	1	월	,
구름이와 만난 날								

글, 사진: 한지수

재수 생활을 끝내고 본가에 돌아온 어느 11월날,
집에 도착했는데 어스렁 어스렁
사자 같은 존재가 다가왔다.

딱 사자 같았던 그 자태와 보석 같은 눈,
거기에 뽀송뽀송한 털 웅치까지...! 고양이였다.
왜 아무도 우리 집에
양이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지?



나는 고양이에 대해 아무 언급도 없었던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여 이건 저건 물어봤다.
이름은 구름이라고 했다.

동생이 충청도까지 KTX를 타고 데려왔다는 구름이.

“구름이는 어디가 우리 가족이 된 거야?!”

우리집 막내 구름이

궁금해서 동생에게 물었더니 고양이 알레르기
여부조차도 모르는 사람에게 가거나
털이 길다는 당황스러운 이유로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6번이나 파양되었다고 했다.

그 짧은 시간에 6번이나 파양 되었다니.
이후 동생이 입양 공지를 보았고,
구름이를 11월에 데려온 것이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1년이 되었고,

구름이는 우리 집에 정착하여

가족이 된지 벌써 5년이 되었다.

“구름아, 이제 어디 암가.

구름이는 영원히 우리 집 식구야!”

구	우
름	리
이	가
레	족
오	이
를	
소	입
개	양
합	한
니	
다	



가족이 된 계기 ✩

고양이 알리지 여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입양 갔다가 텔이 길다는 이유로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6번 파양되고,
이후 올라온 입양 공지 본 동생이 메리고 왔어요

이름: 구름이 성별: 남(땅콩 X)
생일: 2016.01.11 (5살)



특징 2 철이 빨리 들어서 많이 온순하다

특징 3 하지만 사람에게만 온순하고
고양이 동생에겐 형 노릇 엄청 한다(1묘2성격)



★ 가족이 된 계기

길냥이었던 레오의 엄마가 레오를 낳자마자
고양이별로 떠나버렸고,
이후 레오의 입양 공고를 본 동생이
데려오게 되었어요

이름
레오
성별
남(땅콩 X)
생일
2016.09.01 (5살)





Friendly, Refreshing, Slow Life



“다시 보니까 정말 좋다!”

오래 알고 지냈던 사람과
우연히 거리에서 마주쳐보신 적 있으신가요?

찰나의 순간이 전해주는
다정하고 따뜻한 인사를 기억하신다면,

[Hello Again,]

카페베네 리뉴얼 매장이 문 앞에서 베네캣과 함께 건네주는
깔끔하고 정갈한 느낌의 인사와 마주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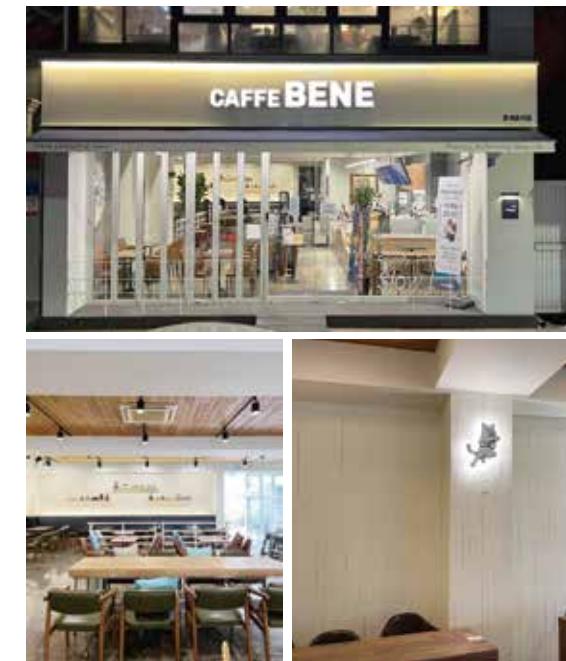
Friendly
Refreshing
Slow Life

이전의 기억과 내일의 추억이 자리할
카페베네 리뉴얼 매장 다섯 곳의

새로운 인사를 지금 바로 전해드립니다

홍천

#카페베네 홍천점



우리동네 홍천에서 가장 넓고 쾌적한 카페를 찾고 계시다면 최근 리뉴얼한
매장 홍천점을 찾아보세요. 빛나는 베네캣 사인이 인상적인 이곳은 혼자
와서 작업하기에도 좋고 친구들과 모여 담소를 나누기에도 좋답니다.
통유리로 분리된 공간은 우리에게 안정감 있는 장소를 제공해 줘요,
단체석이 마련된 매장으로 중요한 미팅을 함께 할 수도 있지요. 예전
카페베네의 시그니처 감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베네캣과 함께 숨 쉬는
이곳은 우리에게 즐거운 변화를 예고한답니다. 단정한 모습으로 여러분께
새로 선보이는 홍천점의 모습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주소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65-18

영업 시간 : 09:00~22:30

전화 번호 : 033-434-2374

계룡

#카페베네 계룡시청점



나의 높은 꿈과 상상력을 펼치기에 이보다 더 좋은 매장이 있을까요? 북 카페 같은 다정함으로 다가오는 카페베네 계룡시청점은 2층 매장으로 층고가 아주 높아 나의 드넓은 상상력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 줘요. 또한 따뜻하고 다정한 조명이 공간을 가득 채워주어 우리의 낭만도 그 빛을 따라 찬란하게 빛난답니다. 공간을 가로지르는 균형 잡힌 계단을 올라가면 2층 공간 역시 통유리창으로 이루어져 있어 한적하게 바깥을 바라보기 좋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모던하고 깔끔하게 변한 카페베네 계룡시청점에서 잊고 지냈던 나의 열정에 Hello Again, 반기운 인사를 건네보세요.

주소 : 충청남도 계룡시 금암동 154-1 (1.2층)
영업 시간 : 09:00~22:00
전화 번호 : 042-551-6232

남양주

#카페베네 덕소역점



덕소역 5분 거리, 한강 공원 10분 거리에 위치한 덕소역점은 이미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 매장이었는데요. 이번에 베네캣과 새로운 모습으로 함께하여 정감 있는 느낌에 친근한 분위기를 더했어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덕소역점은 높은 층고로 창의적인 사고를 도와줄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대화와 내가 집중하는 시간을 모두 새로운 길로 이끌어주는 깔끔한 화이트톤의 덕소역점에서 오늘 잠시 쉬어가세요, 뜻하지 않은 행복과 긴 만족감을 발견하실지도 모르니까요!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72(덕소한강벽산메가트리움114)
영업 시간 : 09:00 ~ 24:00
전화 번호 : 031-521-3732

청주

#카페베네 청주용암점



여러 유적과 함께 살아 숨 쉬는 우리동네 카페베네 청주용암점이 감성 가득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모던하고 깔끔한 바깥 좌석은 봄과 가을에 분위기를 더해주었는데요. 문화예술을 즐기기 좋은 망골 조각 공원부터 동네의 다양한 공원들의 곁에 함께 있는 청주용암점은 맑고 투명한 모습이 매력적이었어요. 반듯하고 청결한 청주용암점에서 보다 감각적인 하루를 보내보세요. 공원처럼 동네의 편안한 쉼터가 되어줄 용암점이 여러분에게 일상에 선물처럼 다가가 설렘을 선사해 줄 거예요!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184번길 78

영업 시간 : 09:00~01:00

전화 번호 : 070-4154-2350

옥천

#카페베네 충북옥천점



누군가 리뉴얼 매장의 특별함을 묻는다면 가장 먼저 충북옥천점을 말씀드릴 거예요. 화이트톤으로 시원하게 바뀐 매장을 지나 안쪽을 들어서면, 우리의 추억을 고스란히 간직한 우드톤 분위기의 카페베네가 수줍게 모습을 드러낸답니다. 고객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시는 카페베네에 얹어진 새로움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변화가 건네주는 새로움을 맛보게 해줘요. 베네캣 배너가 맞이하는 입구와 한층 깔끔하게 변한 내부는 옛 모습과 새 모습이 공존하여 기분 좋은 추억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변화하는 가운데에서도 마치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카페베네 충북옥천점을 오늘 찾아보세요. 이전의 기억과 오늘의 추억으로 고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첫 만남을 제안합니다.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436-16

영업 시간 : 09:00~22:00

전화 번호 : 043-731-0100

도시의 식물

반려식물이 생긴다는 것

글 사진 | 오광록

21년 여름, 성수동으로 이사를 와 가장 먼저 한 일은 내 취향으로 집을 꾸미는 일이었다. 가구를 하나씩 들이고 조명 구독을 시작한 이후 방이 집의 형태를 갖춰가자 이제는 '집들이'를 해도 좋겠다는 생각도 슬슬 들기 시작했다.

"집들이하면 을 거야?"

"언제 물어보나 궁금했어!"

친구들 사이에서 거의 처음으로 독립을 해서인지, 친구들은 내심 기다렸다는 듯 날짜부터 정하며 얼른 가고 싶다는 말을 전했다.

집들이 당일, 친구들은 '내가 사기는 아깝고 남이 주면 좋은 선물'들을 하나씩 건네며 참 다정했다.

"빈손으로 오라고 했는데..."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잖아"

손 세정제와 디퓨저, 세심하게 포장된 편지와 각종 생활용품까지, 내가 산 가구에 하나 둘 친구들의 취향이 엹어지자 집이 훨씬 포근해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만의 방이 생길 때를 대비해 여행 때마다 틈틈이 모아둔 그릇과 접시, 찻잔을 펼쳐놓으며 "웰컴티입니다!"라고 말하자, 한 친구가 그 말에 웃으며 쇼핑백에서 선물을 주섬주섬 꺼내들었다.



"초대해 줘서 고마워.
함께하기 좋은 친구를 데려왔어!"

식물? 사실 반려 식물은 집을 꾸미기 시작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들이고 싶은 친구였다. 이 좁은 공간에 나와 함께 사는 식물이 생긴다는 게 반갑고 고마우면서도, 친구가 떠나고 난 후 이것저것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지난날 허브를 집에 들었다가 며칠 지나지 않아 내 품을 영영 떠나보낸 뒤 단 한 번도 식물을 키워보겠다고 결심하지 못한 채였다.

나는 우선 인터넷에 스투키라고 검색했다. 공기정화식물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어쩐지 이 방의 탁한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 태어난 식물은 아닌 것 같았다. 그런 기능적인 역할보다는, 이상하게 식물이 '살아 있다'는 느낌이, 식물이 이 방 안에 존재한다는 느낌이 더 컸다.



'Easy Care'이라는 풋말과 다르게 스투키라고 불리는 이 식물에는 여러 주의사항이 따라붙었다. 처음엔 '스투키'라는 이름도 잘 외워지지 않았다. 서울의 끝자락이긴 했지만 도시에서 나고 자라서인지 언제나 식물들은 항상 먼 것, 이름을 모르는 낯선 이방인처럼 여겨지고는 했다. 도시 속에서 식물은 어쩐지 이름이 잊힌 채 외로울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다. "이건 잡초인가?" 친구들도 상황은 별로 다르지 않아서 항상 이름에 물음표를 붙였다. 그만큼 확신이 없었다. 주의 깊게 식물을 관찰한 것은 학교 수업 시간이나 숙제를 할 때가 전부였는데, 그마저도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름을 잊게 됐다.

스투키는 느닷없이 내 마음에 세를 놓은 것처럼 살더니 점점 그 평수를 늘려갔다. Easy Care이라는 풋말을 보며 나는 안심했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스투키가 아프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당황하기도 했다. 이토록 무해한 친구에게 내가 상처를 준 것은 아닐까 싶어 그 후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스투키를 살폈다. 하지만 생채기처럼 보이는 상처는 끝내 회복되지 않았다. 그 후로 마음이 아파 철저하게 물을 조금만 주고, 항상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스투키를 두었다.

그러던 어느 날, 스투키에 새싹이 올라왔다. 놀라움과 감탄 속에서 당장 새싹을 검색해 보니, 조금 자라면 바로 분리를 해줘야 한다고 했다.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던 자리에 새로운 싹이 생겨 반가우면서도 이제는 나도, 이 스투키도 성수동의 한 공간에서 자리를 잘 잡아가는 것 같아 기쁜 마음이 들었다. 나는 며칠 뒤 성수동에 있는 제로 웨이스트 삼에서 새싹들의 새로운 집이 되어 줄 화분 하나를 구매하며 많이 행복했다.



가끔은 스투키가 나와 닳은 것 같아 심심할 때면 괜히 말을 걸기도 했다. 내가 낯선 도시에 처음 밭을 디디고 적응해가는 과정처럼, 이 스투키 역시 고향은 다른 곳이었을 것이다. 쉽게 잠이 오지 않는 밤에 가만히 스투키를 바라보고 있다 보면 괜히 이 공간에 나만 있지 않다는 사실에 안심이 되기도 했다. 스투키는 과묵하지만 다정한 친구가 되어주었고, 나는 그런 스투키가 자리를 잡고 가족이 되어 정말 행복했다.

“이 친구들 이름은 뭐야?”

다른 친구가 스투키를 보며 물었던 적이 있는데, 에세이를 쓰며 이제야 정하기로 했다. 글을 쓰다가 마지막 사진을 찍으려던 참에 깜짝 놀랐는데 초안을 마무리하던 중에 새싹이 하나 더 올라왔기 때문이었다. 다섯 친구의 이름을 뭐라고 부를까 하다가, “도 / 시 / 의 / 식 / 물”이라는 외자로 이름을 지어주었다.

도는 많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계속 자라주었으면 좋겠고, 시와 의는 지금처럼만, 식과 물은 앞으로의 나날들이 밝게 빛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너희들을 정말 많이 사랑해,
앞으로도 오래 함께 하자.





하루에도 수십 번 취향이 바뀌는 베네씨의 입맛은 어쩌면 카페베네를 위해 태어났나 봐요.

베네씨는 올해 여름 카페베네에서 모든 젤라또 메뉴를 다 시도해 보기로 결심했어요. 빙수 맛집인데 이제는 1인 빙수로도 먹을 수 있다지 뭐예요.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1인 빙을 하고 있어요. 와우, 카페베네, 취향껏 골라 먹을 수 있어 좋아요.

젤라또 쉐이크



1인 빙수



아포가토

COLD BREW DECAF



베네씨는 이제 단골이 되었어요. 사장님은 그런 베네씨에게 디카페인 콜드브루가 이미 3월에 출시되었다고 소곤소곤 알려줘요.

밤에도 베네 커피를 즐길 수 있었던 것인가요?



베네씨는 여름 내내 카페베네 빙수를 즐겼던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요. 아무래도 안되겠어요. 이제는 디카페인 차례예요.

베네씨는 여름에 약속이 끝난 후 노현역 일대를 걸어 다니다가 카페베네를 발견했어요.

“오호호 베네캣이다!!”

통유리창과 높은 천장으로 탁 트인 카페베네가 베네씨를 활짝 반겼답니다.

들어가보니 무려 20개나 되는 젤라또 메뉴가 베네씨를 유혹하고 있어요.

베네씨의 최애 디카페인 커피 음료는 기본 콜드브루 라떼 디카페인 이에요.

하지만 고소하면서도 달콤한 맛과 에티오피아 디카페인의 화사한 맛이 조화로운 콜드브루 헤이즐넛 라떼가 얼마나 고급스럽고 부드러운지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베네씨는 디카페인을 처음 만나게 된 날부터 총 10일간 빠짐없이 카페베네를 들렸어요. 콜드브루 전 메뉴 10종 모두 디카페인으로 변경 가능하다는 소리를 듣고 매일 밤 카페베네에 들린 것이에요.

콜드브루 티라미수 프라페노 디카페인, 콜드브루 바닐라 플로트 디카페인 브라운 슈가 콜드브루 버블 라떼 디카페인 심지어 디카페인 빙수까지...!

콜드브루 헤이즐넛 라떼 디카페인

DECAF



콜드브루 티라미수 프라페노 디카페인 콜드브루 바닐라 플로트 디카페인

커피 빙수 디카페인



베네씨는 디카페인을 모두 섭렵한 후 커피와 함께 어울리는 빵을 즐기기 시작했답니다. 이국적인 맛의 임봉뵈르부터 깅빠뉴, 우리 마늘 바게트 볼까지! 아침부터 오후까지 베네씨와 함께해요.

임봉뵈르



우리 마늘 바게트 볼



베네씨는 올 연말에 카페베네가 어떤 겨울 신메뉴를 선보일지 궁금해졌는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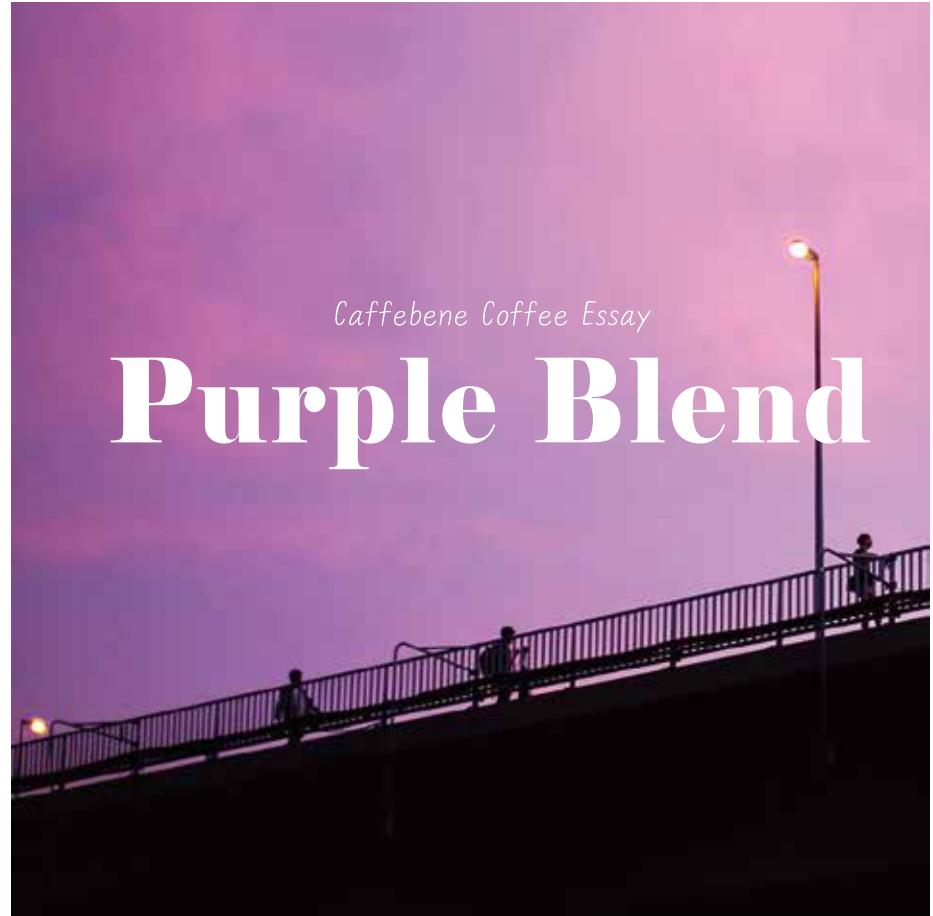
연말 흉파티 분위기와 딱 어울리는 겨울 베네 흉파티 레시피를 출시하고야 만 것이에요!

베네씨는 그렇게 치즈와 뱅쇼를 즐기며 따뜻하게 연말을 마무리했답니다.

로즈베리

바스크 치즈 케이크





어쩌면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조차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



금요일 저녁, 퇴근길에 보랏빛 석양으로 물든 하늘을 봤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랏빛 하늘이라니, 참 예쁘고 좋다. 그런데 이렇게 ‘풍경’을 ‘아무 생각 없이 바라봤던 기억’이 대체 언제가 마지막이었지? 보자마자 좋아서, 한동안 버스 안에서 하늘만 바라본 기억이 나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질문도 생기더라고요.

어쩌면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조차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

원래는 이번에 출시하는 캡슐 커피의 이름을 선셋 블렌드라고 지으려 했어요. 하지만 보랏빛 하늘이 전해주는 특별한 기분과 감상이 선셋이라 말에는 담기지 않을 것 같아 퍼플 블렌드로 결정하게 되었죠. 퍼플 블렌드라는 이름은 그렇게 설렘을 가득 담은 채로 지어지게 됐어요. 느긋하고 여유로운 주말을 닮은 커피. 잊고 지냈던 나의 깊은 감수성을 깨우는 커피. 금요일 저녁 내 주말의 시작을 알리는 커피. 제가 봤던 그날의 보랏빛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정성껏 만든 블렌드가 바로 이 퍼플 블렌드랍니다.

- 베네 캡슐 퍼플 블렌드 MD 기획자와의 대화 中



더 편하게, 실패 없이 요리하기 위해 간편식 밀키트를 사 먹는 시대죠. 턱없이 부족한 시간 속에서도 프리미엄 가득한 일상을 즐기기 위해 시간을 절약하면서 최대의 효율을 내기 위해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시간’과 ‘여유로움’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현대인들에게 시간은 여러 의미로 많이 부족해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와중에 “나의 시간을 아껴주면서도 가장 맛있는 단 한 잔의 커피를 완성시켜주는 캡슐 커피가 있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좋을까?” 카페베네는 고민했습니다. 캡슐 커피의 준비물은 매우 간단하니까 가능할 것 같았어요. 오직 캡슐 머신, 음용수, 추출 잔, 캡슐 커피만 있으면 되죠. 그 준비물이 모두 갖춰진 상태라면 추출해서 먹는 것은 더 간편하답니다. 예열 시간은 30초 이내고 추출 시간은 20초 이내, 총 1분 안에 추출해서 마실 수 있는 커피예요. 간편식에 밀키트가 있다면, 커피계에는 캡슐 커피가 있는 셈이죠.



“
나의 시간을 아껴주면서도
가장 맛있는 한 잔의 커피를 완성시켜주는
베네 캡슐 퍼플 블렌드
”

카페베네는 거기에 한국인을 위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전용 커피** 개발에 힘썼답니다. 집에서 맛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어 마시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겨울에도 아이스를 즐기는 열죽아도 있고요. 퍼플 블렌드와 함께라면 손쉽게 맛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즐기실 수 있어요. 여름에 어울리는 화사한 시트러스와 밝은 감성의 자몽, 구운 아몬드의 고소하고 달콤한 맛, 또 미디엄 바디가 조화를 잘 이뤄 헛별 짹한 여름과 잘 어울리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전용 블렌드**로 완성시킬 수도 있고요.

원두 구성은 **브라질 엘로우 베번 40%, 브라질 세하도 20%, 콜롬비아 수프리모 20%, 케냐 피베리 20%**로 이루어졌는데요. 콜롬비아와 케냐 원두에는 특별한 이야기들이 숨어있어요.

먼저 콜롬비아 수프리모(Supremo) 원두부터 살펴보자면, 생산량 세계 3위에 빠지는 콜롬비아가 직접 관리하는 생두라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콜롬비아에서 커피는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인데요. 커피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커피 협회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답니다. 콜롬비아 생산자 협회(FNC)는 1927년 조직된 비영리단체로, 56만 세대의 커피 농가를 대표하는 단체예요. 카페베네 캡슐 커피에서 사용되는 콜롬비아 원두는 이 협회를 통해 수출이 진행됩니다. 그만큼 생두 상태를 더욱 긴밀하게 관리하며 수출 여부를 평가하고 있어 고품질 커피라는 인상을 받으실 수 있죠.

다음으로는 케냐 피베리(Peaberry)인데요. 피베리 역시 독특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평균 수확량에 5% 정도만을 차지한다고 하니, 그 수치만으로도 특별함이 느껴지죠. 고개님들에게 특별한 경험과 재미를 선사해 드리기 위해 카페베네는 케냐 원두 중에서도 피베리를 골랐어요. 피베리를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나라는 케냐와 탄자니아가 대표적입니다. 케냐의 피베리는 밝은 산미, 열대 과일, 잘 익은 과일의 풍부한 단맛이 느껴지는 것이 특징이랍니다!



환경을 고려하는 패키지 또한 퍼플 블렌드를 출시하며 가장 신경 쓴 부분이에요. 친환경 트라이탄 재질의 리유저블 컵에 캡슐 커피를 포장하여 일회용품을 최소화하였답니다. 선물하기에도 좋고 내가 가지기에도 좋은 친환경 패키지를 오늘 바로 만나보세요. 저기 저 면 하늘의 보랏빛 구름을 닮아 부드럽고 맛있는 퍼플 블렌드가, 당신의 금요일 저녁을 한층 더 여유롭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Taiwan

대만 신베이시에 위치한
우리동네 카페베네 신규 매장
대만 이안점을 소개합니다!

저번 매거진에서
신규 매장 소개로 활약해 주신
베네캣 리포터가 이번에는 대만에 들려
오픈 때부터 남다른 존재감을 드러낸
이안점을 취재해왔다고 하는데요.

베네캣 리포터!

대만 이안점의
인기 비결은 무엇인지,
현장에서 알려주시죠!

인기 만점 대만 이안점, 그 비결은?



Hi, yian



안녕하세요 베네캣 리포터입니다!

카페베네 대만 이안점은 대만 교통의 요충지인
신베이시에 위치해 있는데요.

8평 규모의 소형 테이크 아웃 전문 매장이지만
아침부터 손님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만 이안점은 한글 메뉴명을 사용하며 K-카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아침을 중요하게 여기며 끼니를 거르지 않는
우리동네 대만 분들의 취향을 저격한
한국식 아침 메뉴와 대만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메뉴 또한 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직접 매장에서 생지를 구워 빵을 만든다고 하니,
그 신선함이 한국까지 전해지는 것 같기도 하네요!



대만에 살고 계시는 한국 분들에게도
낯설면서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을 대만 이안점!

우리동네 작은 매장 이안점이 여는 두 개의 큰 아침.
서울과 타이페이의 따뜻한 햇살을 오늘 만나보세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이기심 vs 공감을 바탕으로 한 이타심

애덤 스미스(Adam Smith)와 오징어 게임(Squid Game)

최근 한류가 전 세계의 문화적 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기생충과 미나리가 아카데미상을 휩쓸고, BTS는 빌보드차트 1위를 차지합니다. 블랙핑크는 파리 패션계의 주인공이 되더니 최근에는 한국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서비스가 제공되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시청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부 평론가들은 한국의 독특한 전통놀이를 소재로 사용한 것이 다른 나라 시청자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켰고 그것이 오징어 게임의 성공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게임과 여타 소재들은 사실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것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단지 비슷한 유형의 게임뿐만이 아니라 데쓰게임이라는 시나리오의 기본 구조도 이미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에 사용된 형식입니다.

여기서 두 권의 위대한 책을 저술한,
어떤 철학자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철학자의 이름은 애덤 스미스입니다. 애덤 스미스는 인간의 이타심에 관한 책과 인간의 이기심에 관한 책을 각각 한 권씩 저술했습니다. 첫 번째 책의 이름은 '도덕 감정론'이고 두 번째 책은 '국부론'입니다. 에든버러에 있는 그의 묘비에는 그의 뜻에 따라 "여기에 도덕감정론과 국부론의 저자, 애덤 스미스의 유해가 묻혀 있다." (Here are deposited the remains of Adam Smith. Author of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and Wealth of Nations)라고 적혀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저서 국부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떠올리는 단어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표현은 국부론의 '중상주의 비판' 편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그 유명세에 비해서 이 표현이 그의 저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했다면, 900페이지가 넘는 책에 딱 한 번만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국부론의 핵심 내용은 '호모에코노미쿠스 가설'로, 합리적인 의사 결정과 이윤추구를 극대화하려는 인간의 본성 즉 '이기심'이 개인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주장입니다.

그의 또 다른 저서, 도덕감정론의 핵심 내용은 '호모엠파티쿠스 가설', 타인에 공감하고, 함께 기뻐하며, 협력하려는 인간의 본성, 즉 '이타심'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주장입니다.

애덤 스미스는 별별적으로 두 가지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이기심과 이타심의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다른 저서까지 통합해 본다면, 오늘날의 세상을 만드는 데에 두 본성 중 무엇이 더 큰 기여를 했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애덤 스미스가 한쪽의 편을 완벽하게 들어주었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난 40년간 경제학계를 지배해 온 신자유주의자들은 당연히 이기심의 손을 들어주겠지만 신자유주의 이전의 케인즈 학파와 오늘 현재 우리 사회를 포함한 서구사회의 핵심 논쟁거리인 복지, 기본소득, 정부의 역할을 주창하는 학자들은 역으로 이타심의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2021년을 휩쓴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이야기해 볼까요.

전 세계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를 통해서 감동받고, 공감하는 이유는 앞서 말한 애덤 스미스의 인간의 두 가지 본성, 즉 이기심과 이타심을 다루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돈이라는 대상에 대한 개인의 탐욕 추구를 위해서 타인의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칠 수 있는 이기심,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조차 희생할 수 있는 이타심.

이 극의 배우들은 이기심과 이타심이라는 두 가지 극단적 방향으로 마음속에서 초기일관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심이 이기기 위해서는 이타심을 가운데 절벽까지 끌어당겨서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 버려야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감독은 이 두 가지 인간의 본성을 게임 위에 올려놓은 것이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극 중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에게도 매 순간 묻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 두 가지 본성에 관한 논쟁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랫동안 지속 되어온 주제입니다. 이 보편적 주제를 드라마로 풀어낸 것이 오징어 게임이며 그 성공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성공의 이유는 배우들의 서사일 것입니다. 서양의 모든 드라마나 영화는 주인공 혹은 주인공의 가족과 그를 둘러싼 몇몇 사람들만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악인이거나 하찮은 존재들일 뿐입니다. 시청자들은 결국 주인공과 주인공의 주위 사람들에게만 감정이입을 하고 그들이 승자가 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오징어 게임에 출연한 모든 인물들은 실제로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자기 인생의 주인공들입니다. 각각의 인물들은 자기들만의 서사가 있고, 때로는 이기심에 때로는 이타심에 흔들릴만한 충분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를 지켜보는 우리는 그들의 선택에 공감을 느낍니다.
애덤 스미스가 말한 이타심의 시작, 바로 그 공감 말입니다.**

저는 인류학자 마가렛 미드의 말로 그 대답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비록 오징어 게임의 진정한 승자가 누구인지, 이타심이 이기심을 이긴 것인지, 이 게임 이후 주인공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감독은 은연중에 이 드라마를 통해 욕망과 이기심을 이겨내려고 하는 공감과 이타심의 투쟁을 청취자들에게 보여주려 한 것은 확실한 듯합니다.

지난 수만 년 동안 인류는 성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인류의 성장을 단지 경제적 풍요로움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소득 증가율, 경제성장률, 문맹률, 유아사망률, 기아, 범죄율 등등 성장과 발전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대를 들이대더라도 인류의 발걸음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향해가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현시대 최고의 지성인자 위대한 인지과학자 겸 진화심리학자인 스티븐 핑커는 그의 위대한 저서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에서 100여 개의 그래프와 표들로 인류 역사에서 폭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음을 보여주고, 결국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들이 악마들을 제압함으로써 보다 평화로운 시대로 발전해 왔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기성세대들은 끊임없이 젊은 세대들에게 옛날이 좋았다고 이야기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느리더라도 지속적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진실입니다.

애덤 스미스는 인간이 가진 이기심과 이타심 모두를 발전의 동력으로 생각했고 그 역할이 충분히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오징어 게임도 인간의 이기심과 이타심이 각각의 개인들의 마음속에 공존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스티븐 핑커는 우리 마음속의 천사가 악마를 이겨나가는 현실을 증명해 내었습니다.

이기심과 이타심, 천사와 악마, 어느 것이 인간의 본성에서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인류의 발전에 더욱 기여했을까요?

누군가 그녀에게 문명의 시작된 지점이 어디서 부터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질문을 한 사람은 석기의 사용, 불의 발견, 농경의 시작 등을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마가렛 미드는 문명의 첫 번째 징조가 “부러졌다가 붙은 흔적이 있는 다리뼈”라고 말했습니다. 미드는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인간이 아니라 단지 동물인데 다리가 부러졌다면,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으로부터 달아날 수도 없고, 물을 마시려 강에 가거나 사냥을 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냥 다른 짐승들을 위한 먹이에 불과합니다. 동물은 부러진 다리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러졌다 붙은 흔적이 있는 다리뼈는 누군가가 그 사람이 치유될 때까지 곁에서 도와주었음을 나타냅니다. 누군가가 곤경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돋는 것이 바로 문명의 시작입니다.”

**공감, 이타심, 배려.
결국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세상을 더욱 좋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카페베네는 그렇게 믿습니다.

발행인 김영선



백빈건물
(성동구 흥선역구내)
시외고정시 면화차
전화번호 02-1790-1002
점포번호 02-2027-7119

가장자

신도우단 정향
전화 02-1790-1002
점포번호 02-2027-7119

**CAFFE BENE**

홈페이지 | www.caffebene.co.kr
인스타그램 | @caffebene_official
페이스북 | /caffebene_official

발행인 김영선
편집장 오광록

Communication
roka@caffebene.co.kr
02-3438-1427

주소 서울 성동구 상원1길 25, 8층

제작 | 카페베네
기간 | 2022년 1월 25일
인쇄 | 한국학술정보(주)

에디터 | 오광록 | roka@caffebene.co.kr

디자이너 | 김규리 | gyul@caffebene.co.kr
장유진 | yujin@caffebene.co.kr
이혜명 | hyem@caffebene.co.kr

글 | 오광록 | roka@caffebene.co.kr
김규리 | gyul@caffebene.co.kr
김영선 | kyeongsun@caffebene.co.kr

기고 | 박서정 | scott111000@naver.com
한지수 | jisu10111@hanmail.net
김주은 | ujaush18@naver.com

사진 | 김규리 | gyul@caffebene.co.kr
박서정 | scott111000@naver.com
한지수 | jisu10111@hanmail.net
김주은 | ujaush18@naver.com

그림 | 정가현 | menthatea@naver.com
김주은 | ujaush18@naver.com

폰트 | 사용 | 나눔 손글씨체
서체 | 제주명조체
상상토끼체
엄마의 편지체
KCC 은영체